

COTI story



2015. 4. Vol.19
www.coti.go.kr



COTI 특별 Session



COTI 강사 Talk Talk



COTI Inside



COTI Today



제26대 옥동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취임

옥동석 제26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5월14일 중공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옥동석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때에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면서 “국가의 핵심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직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는 국가의 근본임무는 국민행복에 있다는 국정철학을 국정전반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을 체계화 할 것이며, 둘째는 중공교가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 받는 사람의 감동과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의 양보다는 질적인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중공교가 단순히 교육을 운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개발과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명실 공히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끝맺음으로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중공교의 진천 이전은 대한민국 정부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016년 하반기에 『진천·과천 양원체제』의 개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옥동석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약 25년 동안 인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520명 예비사무관 공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 일시 : 2015. 4. 13.(월) • 교육과정 : 제60기 신입관리자과정 입교식

5급 공채 및 민간경력채용자 제60기 신입관리자과정 입교



중공교는 4월 13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사무관들의 공직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제60기 신입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신입사무관이 될 준비를 시작하는 이번 제 60기 신입관리자과정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403명과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17명이 참여하여, 22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2015년 신입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공직가치 확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헌법, 통일안보, 청렴교육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와 함께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학·과학 통섭, 글로벌 마인드 형성, 실전형 정책기획 교육이 진행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에 처음 지원할 때의 굳은 다짐을 잊지 말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공직가치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입관리자과정은 1967년 7주간의 행정관훈련과정으로 개설돼, 지난 50여 년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대표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직가치를 겸비한 Global 국정리더 양성

• 일시 : 2015. 2. 9.(월) • 교육과정 : 제23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3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 및 변화마인드 교육” 실시



중공고는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할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 “제23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을 2월 9일 개최하였다.

고위정책과정은 고위공직자의 종합적 정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1993년 개설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이다. 2014년도까지 1,15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올해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68명이 입교하여 12월 2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입교식 직후, 4박 5일간 “마인드변화 교육”을 통해 교육기간 자기비전 설계 및 공동체의식 함양의 시간을 제공하고 정책이슈 토론 등의 시간을 갖는 등 교육의 몰입도와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공직가치와 정책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교육을 강화하고 중국어, 일본어 중심의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고위정책포럼 등을 신설하고,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생과 민간CEO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민관합동CEO정책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고위정책과정을 통하여 정부와 각 기관, 나아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선도할 국정핵심리더를 길러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과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의 시대적 소명



오종남 · 前 통계청장

• 일시 : 2015. 2. 23.(월) • 교육과정 : 제23기 고위정책과정

“공직자는 국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야 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식과 손자에게 세계속의 한국을 남겨주는 길입니다.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 즉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2월 23일 오종남 前 통계청장은 제23기 고위정책과정에서 공직자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오 前 통계청장은 “먼저 바쁜 현직에서는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고 하였다.

“1973년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04달러로 UN이 정한 빈곤의 기준에서 벗어난 중요한 해” 라며 “지금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 6,000달러로 세계 14위, 무역규모 1조 1,0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국가가 됐다” 고 말하며, “우리 세대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 이라며, “이제 우리는 자식들이 더 대접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경제 성장이 여기서 내리막을 걸어서는 안되며, 과거 배고픈 시대에 불평등 경제 성장을 하였고 그 현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고위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거창하게 생각 할 필요 없으며 작은 것부터 나만이라도 실천하자고 하며, 이 시대에 공직자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배려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며 살자”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쌓아 놓은 경륜과 연륜을 바탕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과정 중에 생각해 보라” 고 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고위공무원 진입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역량 강화 교육

• 교육과정 소개 >> 제85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중공교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중앙부처 4급이상 과장급을 대상으로 제85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19개 기관 20명의 교육생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으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개발 및 리더십 강화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고위공무원단후보군 양성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이 되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은 2006년 7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고위공무원 후보자 등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입교 전 실시되는 역량이론에 대한 사이버교육 및 역량다면진단과 입교 후 실시되는 모의과제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족한 역량의 자기인식에서부터 역량학습 및 자아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의 역량교육은 가상의 직무과제를 제시하고, 과제수행 과정을 동료·학습지도교수가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체험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강의 중심의 일방형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5일간의 짧은 기간의 역량교육이지만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1기 과장리더십스쿨

• 교육과정 소개 >> 전문교육과



중공교는 중앙부처 과장급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6.~4.10.까지 5일간 과장 역량평가 통과자 71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과장리더십스쿨을 신설·운영하였다.

중앙부처 과장급은 정부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구성원의 사기 및 조직성과 창출의 키를 쥐고 있지만 그동안 전문적·체계적인 리더십 교육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중공교는 과장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준비, 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과정 전반부에서는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이해,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과장급에 꼭 필요한 리더십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리더십역량에 특화시킨 후반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전임 교수진이 기존의 과장후보자과정 및 역량평가 등과 연계시켜 개인별 부족역량을 선택, 심화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과정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최근의 HRD(인적자원개발) 경향을 도입·소개하고자 민간전문기관의 차별화된 리더십프로그램을 도입해 다양한 혁신마인드와 자세, 역량 등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중앙부처 서기관은 과장 직무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과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현장감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과장급 리더십 교육체계를 새롭게 구축, 과장 역할의 중요성과 소통공감형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과장리더십스쿨과정! 조만간 중공교의 대표과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공직가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COTI 칼럼 >> 김송일 중공고 연구개발센터장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증세와 같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고 고여서 인형같이 도태되어 버릴 것이다. 공무원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야기다.

내가 이 곳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온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모든 안건과 과제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모든 교직원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다보니 오류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은 대안들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전 직원이 참여한 정책공동체라고나 할까? 교육원의 장기발전방안인 “World Class COTI”, “교육혁신 3개년 계획”, “국가인재개발원 추진계획”, “2014년 14개 연구용역과제 최종안 도출”, “2015년 교육운영계획”, “향후 추진할 연구개발과제” 등이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탄생되었다.

요즈음 교육원은 공직가치 교육이 화두다. 공직자들의 기본자세 내지 공직가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확고할 때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 생존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세계일류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가 죽은 후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이런 평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한다. “여기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 잠들다.” 그렇다. 우리사회의 잡초는 곳곳에 있다. 한 번에 다 뽑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뽑아내고, 꽃을 심다보면 이 세상도 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나도 오늘 아침 링컨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잡초라도 뽑아내고 꽃을 심어보겠다고 다짐해본다.



News 1

제59회 민·관교육발전 기관장 협의회 개최



중공교와 인사혁신처는 4월 3일 중공교 새롭실에서 46개 교육훈련 기관장 및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교육 훈련기관장 협의회 회의(제59회 기관장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특강을 비롯하여 “공직가치 교육 강화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공직 인사 혁신 필요성과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공유하고 민간의 최신 HRD 경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News 2

5급승진자과정 통일안보 현장학습



중공교는 지난 3월 17일(화), 3월 30일(금) 5급승진자과정 교육생 350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 및 민간인 통분단역 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 등을 방문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안보의식과 통일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 3

중공교 3월 교직원 교육



중공교는 3월 5일(목) 직장과 가정의 양립, 삶의 재충전을 통한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3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우리나라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과천의 서울발레시어터를 초청하여 김인희 단장과 함께하는 “발레볼레”강의와 단원들의 시연을 통하여 이론 습득 및 기본동작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교직원에게 제공하였으며, 교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ews 4

국민행복시대를 이끄는 인재 개발 위해 다양한 목소리 듣는다

“ 제1차 인재개발자문단회의 개최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4월 15일(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유영제 前 중앙공무원교육원장(단장), 정부·대학·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개발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재개발자문단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새롭게 설치되어 미래 공무원 인재상 정립, 미래 인재상에 걸맞는 공무원 채용 및 육성 전략 수립, 경력채용 확대·공직가치 교육 등 인재개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개정 중인 「공무원 인재개발법(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주요내용과 공무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공교의 국가인재개발원 개편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자문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인재개발자문단의 자문내용은 향후 인사혁신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인재개발 전략 수립과 인재개발 현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자문단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안내

중공교에는 기본교육, 국정시책교육, 창조교육, 외국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있습니다. 중공교 홈페이지(www.coti.go.kr)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교육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